

전주시, SNS 활용 시민 소통 '최우수'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서 기초지자체 부문 높은 점수 받아 수상

전주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SNS를 가장 잘 활용한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시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회장 김진열)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SNS 운영 활동이 우수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는 정량평가(40%)와 심사위원평가(30%), 접수 기관·기업의 내부 전문가 평가(20%), 누리꾼 투표 평가(10%) 결과를 종합해 이뤄진 이번 SNS 대상 심사에서 시 단위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대한민국 SNS 대상'에 처음 참가한 지난 2016년부터 6번째 상을 받으며 SNS 활용 우수 지

자체의 명성을 꾸준히 이어가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전주시 공식 블로그(blog.naver.com/jeonju

city)와 페이스북(@jeonju.kr), 인스타그램(@jeonjuicity) 등 다양한 SNS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좋아요', '댓글', '공유', '조회수' 등으로 평가하는 SNS 활성화율이 전국 지자체 최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시는 민선 8기 들어서는 '강한 경제'라는 시정 방향에 맞춰 전주시에서 열심히 꿈을 키우는 기업들을 전국에 소개하는 콘텐츠를 강화해 기업인과 시민들을 연결해주고 있다.

또한 지역 기업들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SNS 이벤트 등을 실시해 기업 홍보를 지원하는 등 SNS를 달린 민선 8기 정책에 맞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형미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홍보로 접근하기보다는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해 SNS를 활성화시킨 것을 심사위원들과 누리꾼들이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민선 8기 달라지는 시정을 알리고 상호 소통하는 창구로 SNS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시민 정신건강증진 기여 '3관왕'

전주시, 정신건강의 날 맞아 공공·민간 부문서 수상

전주시가 올해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3개의 상을 수상해 전주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올해 '전라북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주시보건소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보건복지부 주관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주시정신재활시설인 '아름다운세상'이 각각 '우수 프로그램'을 수상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주시보건소의 경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 △사각지대 해소 △정신응급 대응 체계 강화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에 대해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마음안심버스 사업과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정신질환자

의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도왔고,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사업과 자살예방증진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이들이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회복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기획부문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끝으로 정신재활시설인 '아름다운세상'은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기초 과정 수료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동료지원가 의사소통 교육'을 적극 추진, 당사자 주도형 사업관리 부문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김재훈 기자

세계지방정부연합 특별세션서 전주 우수정책 소개

시, UCLG 월드 총회 특별세션 한-프 지자체 정책교류 세미나서 발표

전주시가 추진해온 통합돌봄 정책이 프랑스 지방정부 대표단의 이목을 사로잡으면서 전주가 글로벌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또 한 번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14일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세계지방정부연합) 월드 총회와 연계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프 지자체 정책교류 세미나'에서 전주형 통합돌봄정책과

전주한옥마을 문화콘텐츠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한프랑스대사를 비롯해 대전에서 열리는 UCLG 월드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파리, 리옹, 니스 등 프랑스의 주요 17개 도시의 시장과 부시장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세미나에서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 구성원

들의 도움으로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 사례를 소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통합 선도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에 큰 관심을 나타낸 프랑스 도시대표단은 전주시와의 교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는 세미나에 참석한 프랑스 지방정부뿐 아니라 UCLG 월드 총회에도 참석해 사무총장과 문화분과위원회 등과 교류하며 도시브랜드와 정책홍보에 힘쓰기도 했다.

서배원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UCLG의 회원도시이기도 한 전주는 2016년 UCLG 멕시코시티 문화어워드와 광주우 도시혁신상을 수상하고, UCLG 전주 청년포럼 개최, 전주시 대학생의 국제기구 인턴십파견 등을 추진하는 등 국제기구인 UCLG를 통해 우수정책을 공유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의 국제 위상 강화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국제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UCLG는 지방자치단체 대민 서비스 향상, 주거환경 향상,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설립된 세계지방정부연합으로 국제적 자치단체간 정보와 정책 공유 및 지방자치 분권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현재 UN 193개 회원국 중 140개 회

원의 1000여 지방정부 및 관련 기구가 가입되었으며, 한국회원은 전주시를 비롯해 22곳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담공간전주 방문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난 13일 팔복동 '소담공간전주'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소담공간전주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돕는 디지털 커머스 전문 공간이다.

해당 시설은 온라인 상거래 교육부터 컨설팅, 마케팅 프로모션 등 라이브 커머스 전환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설립 취지로 지난 4월 옛 청소년자유펜터를 리모델링해 탄생했다.

방문 위원들은 소담공간 관계자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선진 도시건설위원장은 "경제침체로 어려운 요즘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더욱 많은 소상공인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짧은 축제'로 도약' 전주비빔밥축제 성과 빛나

'2022 전주비빔밥축제'가 맛에 집중 한 음식축제이자 짧은 축제로의 도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마무리됐다.

전주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펼쳐진 '2022 전주비빔밥축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다채로운 전주, 맛에美(미)치다'를 주제로 진행된 올해 축제에서는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필두로 다양한 전주 음식과 음식 명인, MZ세대 셰프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전주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 채워졌다.

대표적으로 인생 뷰(view) 맛집에 초

대패 요리사의 코스요리를 즐겼던 '인생맛집', 향교에서 즐기는 '비빔피크닉'과 '비빔파티' 등의 특별프로그램, '전북한상전시'와 '향교길어울림마켓', '비빔놀이터' 등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프로그램은 매진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 축제에서는 명인, 명가들의 전통음식은 물론, 짧은 세프쿠킹단의 다양한 퓨전음식 등이 선보여 기존보다 짧은 축제로 변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10여 곳에 달하는 지역 문화행사기획업체 등이 참여해 지역과 상생하는 축제가 됐다.

시는 향후 비빔밥축제의 완성도를 높여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자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재훈 기자

주말 전주동물원 진입로 일원서 특별 교통대책 추진

전주시가 전주동물원에서 가을 소풍을 즐기는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교통 상황반을 배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동물원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10월을 맞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전 동물원 진입로 일원에서 경찰, 교통봉사자와 합동으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김재훈 기자

먼저 동물원 입장객 증가 시가 교통정체가 심각한 조정대로 삼거리부터 전주동물원 입구까지 약 1.1km 구간에는 차량 정체를 통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상황반이 배치된다.

현장에 배치되는 상황반은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학생중심 미래교육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전라북도교육청이 앞장서겠습니다.

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 행위 집중신고기간



2022. 10. 17.(월) ~ 11. 30.(수)

신고분야 > (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 행위

※ 학교계약(공사, 물품, 용역 등), 학교 운동부, 학교급식, 현장학습, 방과후 학교, 교직원 복무 등






비밀은 보장 신변은 보호 불이익 금지 용기는 보상

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 사례

- 교원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 학부모로부터 금품등 요구·수수하는 행위
- 학교급식 불량 식재로 사용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 헌 교과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업체에 판매하고 대금 횡령
-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부당 수령
- 스쿨버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 시중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물품 구매 후 업체로부터 차액 편취

부패·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 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 터 넷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www.jbe.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팩 스 044-200-7972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한 '비밀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세요